



## 주한 체코 대사 야르슬라브 올샤 주니어 가족 고풍스러운 문화의 나라, 체코를 소개합니다

그해 여름, 프라하의 카를 교 위의 햇살은 따스했다. 저 멀리 프라하 성이 들려주는 고딕과 바로크의 선율은 또 얼마나 감미로웠는가. 주한 체코 대사 야르슬라브 올샤 주니어와의 만남은 프라하의 추억이 떠오를 만큼 따스하고도 즐거운 인터뷰였다.

외교관의 저택이라 조금은 긴장한 마음으로 벨을 눌렀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정원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깔끔한 유아용 미끄럼틀과 귀여운 청개구리 샌드킷. 이제 16개월 된 아들 세바스티안을 위해 야르슬라브 올샤 주니어 대사 부부가 마련한 작은 놀이터에서는 이미 그들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관문을 직접 열고 나서며 반가이 맞아 주는 대사 부부에게선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다.

### 부임 3개월, 한국의 자연에 매혹되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 온 야르슬라브 올샤 주니어 대사에게 한국은 그의 첫 아시아 부임지다. 1992년 외무부에 입사한 이래 중동과 아프리카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기 때문. 그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대사직을 역임해온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의 부임은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해온 그로서도 낯선 공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후나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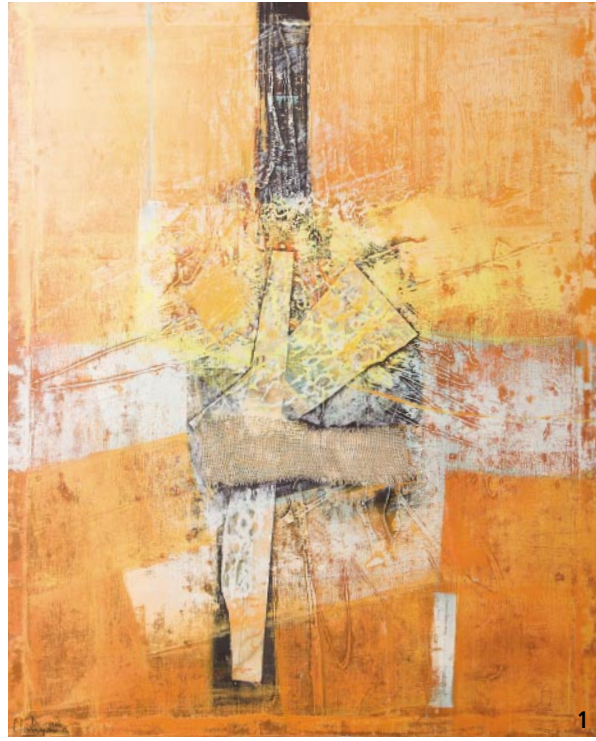
에 아시아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높은 빌딩과 건물을 보고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 메트로폴리탄의 인상이 강했지만, 최근 부산에 갔다가 아름다운 바다와 좋은\_HIT집에 또 한 번 반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구에도 갈 예정인데 무척 기대됩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그는 한국의 자연과 지역 도시에 대한 관심을 엿보였다. 체코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탓에, 남편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을 좋아한다고 전하는 미하엘라 보프코바 대사 부인. 지금은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 있지만 그녀도 외무부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는 촉망받는 외교관이다.

### 워킹맘을 위한 꼼꼼한 배려와 체계적인 공교육 시스템

공무원인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아들 세바스티안을 낳으면서 출산 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코에서는 요즘 30대 중반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민주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이 커리어에 신경 쓰면서 결혼이 늦어지게 된 거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갖추어진 육아 시설이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이나 프로그





램이 무척 좋은 편이지만, 정부에서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4세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교육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출산 휴가를 써도 복직할 때는 자신의 예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대기업에서도 회사 안에 유치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워킹맘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많아요.”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하는 우리네 워킹맘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와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조차 체코의 공교육 시스템은 인상적이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세컨드리 스쿨(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에서 전공 기술을 배우는 덕분에 대학 학위가 없어도 취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공립학교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 교육 과정이 무료다. 체제 변화와 함께 사립학교가 생겼지만 아직 몇 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공립학교의 교육 체계가 훨씬 잘 갖춰져 있어 공립을 더 선호한다. 그만큼 사교육 열풍도 없는 편이다. “수업이 끝나고 음악이나 미술, 발레 등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어요. 방과 후의 학원 시설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예요. 부모들이 일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도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만 한국처럼 입시를 위한 교육은 아니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세바스티안어 어리긴 하지만, 저도 아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 주재국의 문화에 애정이 깊은 ‘문화’ 대사

올샤 주니어 대사의 약력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외무부에 입사하기 전 공상과학(SF) 잡지를 만들어 부편집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SF 마니아인 것. 외무부에 들어온 후에도 SF 문학 백과사전이나 25개국의 SF 소설을 모은 선집을 발간했을 정도다.

“SF는 단순한 공상과학이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미래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지니고 미래의 모습을 관찰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적 감성이 뛰어나서일까. 외교관의 업무 중 으레 정치나 경제 이슈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문화 교류에 그는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두 나라 학생들과 교수들의 교류에 신경 쓰고 싶어요. 최근 한국의대에서 체코어 20년 기념 행사가 열렸고 체코에서도 한국어 60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또 고(故) 백남준 작가의 전시 교류와 한국에서도 체코 화가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외교적’ 멘트로도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감은 다르다. 아프리카 주재 당시 업무가 바쁜데도 짐바브웨의 소설·예술·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집필할 만큼 주재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올샤 주니어 대사. 체코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체코 영화를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등 체코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가하며 이미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으레 대사 관저의 거실 벽은 자국과 관련된 작품이나 소품으로 도배되기 마련인 공간.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둘러본 그의 거실에는 짐바브웨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자신이 주재하던 국가에 대한 올샤 주니어 대사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에디터의 소소한 질문 하나에도 서로 말을 이어가며 꼼꼼히 대답해주던 대사 내외의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외교관이기에 전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타인, 그리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한국과 체코의 만남이 그로 인해 한층 두터워질 것 같다.

에디터 정선 사진 최충식



1 올샤 대사가 짐바브웨에서 재임할 당시 짐바브웨 화가에게서 직접 선물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2 미하엘라 대사 부인이 아들 세바스티안에게 체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3 체코 대통령 영부인 리비아 크리우소바 여사와 함께 한 미하엘라 대사 부인.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두 나라 학생들과 교수들의 교류에 신경을 쓰고 싶어요. 최근 한국의대에서 체코어 20년 기념 행사가 열렸고 체코에서도 한국어 60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또 고(故) 백남준 작가의 전시 교류와 한국에서도 체코 화가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